



봉우 컬럼

노력해라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은 당신의 죄가 아니다. 그러나 계속 가난한 것은 당신의 죄다. 무식한 부모 밑에 난 것도 당신의 죄가 아니나 계속 무식한 상태로 사는 것은 당신 죄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나무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성장한다. 낭떠러지에 심긴 소나무도 그 환경을 이기고 뿌리를 내려 버티며 자란다. 하물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환경 탓이나 하고, 부모 탓이나 하고, 사회 탓이나 하면서 살면 되겠는가. 숲도 좋고 정자도 좋은 환경에 태어난 자가 얼마나 될까. 성공한 자들이나 한 시대의 위대한 자들이 부모를 잘 만나 그리 된 것이 아니다.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오직 피나는 노력이 그들을 만든 것이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다. 노력과 성취는 정확하게 정비례한다. 타고난 천성이 좋지 않아도,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 흙수저를 물고 난 사람은 금수저 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둥,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는 둥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노력보다 무서운 무기는 없고, 노력만큼 최고의 날개는 없다. 베토벤이 그냥 천재소리를 들었겠는가. 베토벤의 생각을 가보면 그가 기거하던 거실에 그의 피아노가 놓여있는데, 얼마나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는지 건반이 움푹 파여 있다고 한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고(磨斧爲針마부위침), 물방울로도 바위를 뚫을 수 있다(水滴穿石수적전석). 노력하면! 노력 없는 대가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쥐뿔이나 있다. 그러므로 얻지 못함은 노력하지 않은 연고다. 성경에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하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셨다. 노력하라는 말씀이다.

행복이란 노력이 주는 쾌감과 성취 속에 있음을 알고, 매사에 노력하는 자가 되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6월의 마지막 날 저녁, 총회장 목사님은 청바지 차림에 목사님의 트레이드마크인 빨간색 빵떡모자를 쓰고 시온성가대 연습실을 찾으셨다.

그곳은 주일에는 성가대 연습실로 쓰이지만, 평일에는 장애우들의 일터다. 4년 전부터 불편 사업을 하는 염상섭 장로가 장애우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총회장 목사님은 이 귀한 사업을 축복하고, 비록 장애를 안고 있으나 열심히 사는 성도들을 돌아보신 것이다. 목사님은 그들을 일일이 격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 복지 하는데, 가장

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육체적인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다. 누구나 육체 중 한 곳은 불편한 법, 진짜 장애인은 정신적인 장애인이다. 부정적인 자, 의욕이 없는 자,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장애인들이다. 여러분은 비록 몸은 장애를 가졌지만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늘 기도하며 사는 자들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믿음을 잘 지켜 천국에 가면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장애를 가진 것에 비관하지 말고, 오늘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바란다. 비록 휠체어에서 일어날 믿음은 없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염상섭 장로는 “소외되고 외롭고, 나이 드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모두 이곳에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즐거움도 나누고 일도 해서 보람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염 장로의 말에는 정말 진심이 들어났다. 그 또한 장애를 가진 자녀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아픔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피자와 치킨을 함께 나누는 뒤, 목사님은 이들에게 마음껏 찬양하고 편히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장소로의 이전을 약속하셨



육체적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2017.6.30 시온성가대실에서 장애우들과 함께)

좋은 복지는 일거리를 주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거리가 없는 자는 불쌍한 자다. 은퇴한 자들이 돈을 기부하면서까지 자원봉사에 나서는 이유가 그것이다. 여러분은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일거리를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게 되면 마음이 선해진다. 악을 행치 않게 되고, 악에게도 선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기도도 잘 되고, 만사가 형통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지면 우선 내 마음이 죽을 것이고, 가인처럼 되는 꼴이 없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늘 감사함으로 살았다. 여러분은 더욱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니 충분히 감사한 마

고부라진 몸이 퍼질 거란 믿음은 없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날 불편한 몸을 벗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체가 불편하다고 해서 성공하지 말란 법은 없다. 호킹 박사를 보라. 그의 몸은 다 꼬부라졌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는가. 말더듬이 처질이 영국수상이 되고,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것도 그렇다. 큰 꿈을 가져라. 몸이 꼬부라졌다고 꿈마저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너희가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을 갖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이 염 장로의 기업이 왕성하여져서 우리 교단의 모든 장애우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반드시

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며 기뻐했다. 장애인 선교 담당을 하고 있는 김수현 장로 및 뜻을 같이 하는 장로들도 이에 흔쾌히 협조하기로 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교회는 마땅히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돈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옷 잘 입은 사람이 오면 대접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냉담하다. 그런 교회에는 예수님도 냉정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으로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의 이 웃이 되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

청년대학부 : 7월 24(월)~26일(수), 중고등부 : 7월 27(목)~29일(토)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39:1~23)

네 믿음의 작품은 무엇이나?

당신은 믿음의 작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믿음의 작품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전들은 다 자신만의 믿음의 작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요셉의 작품부터 감상할까요? 요셉은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에 불만이 쌓여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 맙니다.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요셉은 타고난 성실과 신심으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습니 다. 게다가 외모까지 준수한 17세 청년인 요셉, 누가 봐도 탐이 나는 인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요셉은 멋져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에 동침하자고 꾀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잡은 옷을 벗어두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때 그의 멋진 대사가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 39:9).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고 옥에 들어갔고, 그것은 되레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는 발판이 됩니다. 믿음의 걸작입니다.

이에 못지않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작품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겠는가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바벨론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단6:7).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항상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단6:10). 그는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됐습니 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소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은 사자를 베고 잠을 잤습니 다.

그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믿음의 명작이 있습니다. 그들은 느브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요셉의 일언(一言)만큼이나 멋진 대사가 여기도 나옵니다. 바로 느브갓네살

왕 앞에서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6~18).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만일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쪽 같은 믿음입니까?



은 탄복하셨고, 주의 천사들을 급파하사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나는 것처럼, 명작은 역경 속에서 탄생합니다. 저 역시 목회 32년 동안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를 걸으면서 믿음의 작품을 이루어 몸부림쳤습니 다. 예수를 믿은 후 재산을 무 자르듯 잘라가며 예수를 증거할 때 저의 어머니가 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예수지 아순지를 택할래, 아니면 나를 택할래?” 그 때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예수를 택합니다.” 하고 차에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 다. 어머니만 버린 게 아니라 막대한 재산에서도 손을 뗀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옥상, 비가 새는 온실 속에서 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를 안수한 교단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 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제명된다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팔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제명되었고, 그 날 우리는 교회에 모여 떡을 떼며 잔치를 했습니다. 멋진 장면이 아닙니까?

오래 전, 미국에서 몇몇의 땅끝예수전도단 회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 호텔의 식당으로 초대하고는 미국 명예 시민권을 건네며 “목사님, 미국을 얻어야 세계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세계선교에 이 미국 시민권이 톡톡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미국을 얻어야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어야 세계를 건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는 마침 나온 음식그릇으로 그 시민권을 눌러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작품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골목에 CCTV만 있어도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시 139:1~4).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

을 알았기에 죄를 범치 않았던 것입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만사가 형통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니엘은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역시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 다. “예수를 택합니다.”, “예수를 얻어야 전 세계를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저는 압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으로 만드셨고, 다니엘을 느브갓네살 왕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형통케 하셨으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저도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명성을 높이셨습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싶다면 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무슨 일에도 진심으로 할 것이고,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당신의 믿음의 걸작을 남기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CCTV는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처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려고 완전범죄에 도전했지만, 하나님의 눈만은 피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작품에 한 점의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야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거짓을 고하다가 저주를 받은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 그 분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분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늘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절대 우리의 믿음에 흠집 내는 일은 하지 않고 멋진 믿음의 작품을 만들 것입니다. “여호와와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잠15:3).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보이지 않는 위협, 사각지대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얼마 전, 1차선 주행 중에 2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려 할 때였다. 갑작스레 울리는 경적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옆 차선에는 이미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이었던 것이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였다. 방향지시등을 켜기 전에 분명히 백미러를 확인했는데 어느 샌가 차가 따라붙었던 것일까? 사실 백미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늘 존재한다. 차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을 때가 그렇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한다. 더구나 사각지대는 운전할 때만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니다. 안전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은혜에도 또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안타깝게도 목회자이기에, 직분자이기에 이 사각지대에 노출되기 더욱 쉽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니 정녕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영적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영적 사각지대’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중심(中心)이 빠진 채 일상처럼 반복되지만 할 때다.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형식적인 예배, 간절함이 사라진 기도, 진실함과 충성됨이 사라진 봉사의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무기력한 종교행위만 반복하는 그 때에야 말로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악한 마귀는 바로 이 순간을 노

리고 미혹의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묵은 땅, 묵은 심령이 되면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어떤 영혼도 내일이 보장된 인생은 없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 무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울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 마음가짐과 자세를 권면하면서 특별히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 또한 열외가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살후3:1~2). 사막을 횡단할 때, 대상(大商)들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부상당한 낙타를 어찌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때다. ‘끝까지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경험 많은 대상들은 이때 단호한 처분을 내린다. 부상당한 낙타가 후미에서 뒤쳐져 따라오며 울부짖는 소리는 다른 낙타들의 발걸음을 붙잡기 때문이다. 알량한 자비심이 모두를 위태롭게 하기에 공멸로 가기 전에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이다. ‘영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 어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떠한가?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 To Be Succeeded ::

생사화복의 근원, 생각을 지켜라

1900년대 포르투갈에서의 일이다. ‘노동조합 활동은 금지한다, 모든 사회활동은 국가가 조정, 관리한다, 총리 해임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 58만여 표, 반대 5천, 그리고 기권이 자그마치 42만여 표라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왜 그랬을까? 바로 3F(Futbol: 축구, Fatima: 일종의 종교, Fado: 포르투갈 음악)로 대변되는 일종의 우민화정책 때문이다. 당시 살리자르 총리는 3F를 중점으로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유흥에 투자했다고 한다. 장기집권을 위해 국민의 관심을 국가의 중대 사안이 아닌 여가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반면 일체의 교육 지원은 하지 않은 결과, 36년의 독재 치하를 지나며 국민의 문맹률은 무려 40%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각을 빼돌린 독재자의 의도대로 온 나라가 휘말린 결과다. 로마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디 인생뿐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말씀하신다(잠4:23). 다시 말해 생각에 생

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그 ‘생각’이 뱀의 꾀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결과 단돈 은 삼십 냥에 스승을 팔아넘긴 것이고, 다윗 역시 편안하다, 안일하다 할 때 생각을 빼앗겨 밋세바를 범한 것이다. 반면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으면 서도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전 재산과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지만 끝내는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킨 욥의 창대한 결과를 보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가 되어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감사와 순종, 평강은 가로채고, 원망과 불평, 불순종과 염려의 씨앗을 뿌려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기에.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삼고 기도를 운전대 삼아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고, 바꾸고, 견고케 할 때 내 삶과 영혼에 승리가 있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감사의 능력

2010년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지하 700미터 흙더미 속에 갇혔던 광부 33명은 67일 만에 전원 구조되었다. 구조된 광부의 말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속되자 더 이상 동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내가 인육이 되면 어찌지.’ 라는 불안감에 잠시도 고통이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호세 엔리케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서 서로에 대해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은 기도였지만 우리는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33명 모두는 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노력했습니

다. 예수님은 34번째의 동료이자 우리를 살려준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원하신다. 그 변화의 힘은 바로 ‘감사’에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요6:11),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요11:41).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일 모두 감사의 힘이였다(단6:10). 총회장님 또한 감사가 항암제요, 방부제요, 성장 촉진제라고 가르치신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6~7),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다(살전5:18).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감사뿐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인내하는 자의 축복

인내와 배려심 부족으로 화를 참지 못해 잇달아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최근 텅고 습도까지 높아 불쾌감이 높아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잘 참고 넘길 수 있는 인내와 배려심이 필요하다. 참을 인(忍)자는 칼 도(刀)자 밑에 마음 심(心)자가 놓여있다. 마음에 칼을 얹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참지 못하면 나부터 칼에 찔리게 된다는 뜻으로, 나부터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 마음속에 죽순처럼 솟아오르는 온갖 미움, 분노, 탐욕 등을 마음속에 있는 칼로 잘라버리라는 뜻이기도 하며,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어내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뜻도 담겨 있다. 예로부터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룩하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다고 전해온다.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자신을 잘 알지 못

한다. 상대와 비교해 좀 나으면 우쭐대며 마음이 높아진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그때야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시119:71)고 증거하고 있으며,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8:18)고 고백하고 있다. 또 욥은 고난을 인내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깊이 알게 되었다. 욥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형제와 아내, 이웃 모두 등을 돌린다(욥19:13~19).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지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증언한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자. 갖가지 문제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더 기도하여 풍성한 열매 맺기를 축복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의 결말을 보았다”(약5:11). **임택환 목사**
cjcc1004@hanmail.net

옵사리온 헌신

우리가 흔히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있다. 유월절을 맞아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천명을 먹일 음식을 마련할 방법을 물으셨고, 제자들은 한 소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며 걱정해 싸인다. 하지만 예수님은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에 감사기도를 드리고는 걱정하는 제자들 앞에서 5천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신다. 이때 소년이 드린 보리떡과 물고기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음식이었다. 보리라는 곡식이 맛이 거칠기는 하지만, 밀에 비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에 보리로 만든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 혹은 가축의 사료로나 사용되던 저렴한 음식이었다. 또한 물고기 역시 남다르다.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두스’와 ‘옵사리온’이 있는데, 크고 먹음직한 물고기는 ‘익두스’이고, 바

다에 놓아주는 크고 먹기에는 너무 작아 어부들이 소금에 절여 바닷가에 버려두면 배고프고 굶주린 가난한 자들이 가져다가 먹는 생선이 바로 ‘옵사리온’이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생선은 ‘옵사리온’으로 상품가치가 없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능력과 큰 지식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오히려 이렇게 소박하고 불품없지만 자신의 한 끼를 모두 드린 소년의 헌신에서 일어나곤 한다. 우리나라도 오병이어와 같은 헌신과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가진 전부를 드리며 새벽기도와 금식기도로 단을 쌓아 눈부신 기적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기적으로 풍요로워진 삶 속에서 오히려 헌신과 감사를 잊어버린 채 굶주린 영혼들에게 내어줄 음식 값을 걱정하

고, 내게 있는 오병이어조차 뺏어 가실까 전전긍긍하곤 한다. 이제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약한 자와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일, 부서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봉사는 일, 작은 물질이라도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 등 하나님의 일, 어느 순간 어느 때에라도 내게 있는 ‘옵사리온’ 같은 작고 불품없는 섬김도 기쁘게 드러보자! 너무 작아 쓸모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섬김도 기억하실까? 의심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작은 헌신을 크게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자.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옵사리온’을 받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눈앞에 큰 열매 안 보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는 찬송을 불러본다.

하인명

renming@daum.net

양심(良心)

조선시대, 가난하지만 청렴하기로 소문난 홍기섭이란 선비가 있었다. 어느 날 홍기섭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도둑은 황당했다. 훔쳐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들어간 도둑은 무쇠로 만든 솔단지를 발견하고는 그거라도 떼어가려고 했다. 한편, 인기척이 나는 것을 알아챈 홍기섭의 아내는 남편에게 도둑이 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기섭은 “뭘 가져갈 거나 있소? 우리보다 힘든 사람인가 보오. 그러니 그냥 놔둡시다.” 라고 했다. 반면 도둑은 솔을 떼어내려고 하면서 솔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웬 일인가? 밥을 해 먹은 흔적이 없는 것 아닌가. 도둑은 ‘없어도 지리지 없는 집이구나.’ 하고는 되레 솔단지에 주머니에 있던 엽전 일곱냥을 두고 나왔다. 다음 날 부엌에 간 홍기섭의 아내는 솔단지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고, 더욱이 솔단지 안에 돈까지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남편에게 사실을 고했다. 그러자 홍기섭은 집 앞에 ‘우리 집 솔단지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시오.’ 라는 쪽지를 붙여놓았다. 이 소문이 도둑 귀에까지 들어갔다. 도둑은 과객인 척하며 홍기섭의 집으로 찾아가 말했다. “밖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설마 남의 솔 안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받지 그러십니까?” 그러자 홍기섭은 말했다. “내 것이 아닌데 어찌 주머니에 넣겠습니까?” 그 말이 도둑의 마음을 찔고, 도둑은 이윽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어젯밤 솔을 훔치러 왔다가 가세가 딱해 놓고 갔습니다.” 이후 도둑은 홍기섭의 양심에 감복해 그의 제자로 평생 성실하게 잘 살았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어 슬쩍 내 주머니에 넣다가 최고랑 치는 사람을 많이 본다. 평생 힘들게 쌓아온 명예를 순간 잃는 사람도 본다. 양심의 소리를 듣진 대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딤후1:19).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신호등

빨간 불엔 서고
파란 불엔 가고
법을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법
양심에 따라 걸어온 내 인생
주의 법만 지키며
흐트러짐 없이
걸어가리라

朋友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오래 사는데 도움을 주는 운동 ‘달리기’

수명 연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달리기’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달리는 횟수나 속도와 상관없이 달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정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기만큼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운동은 없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 이덕철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심장병에 관한 진보’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4년 미국 쿠퍼 연구소가 조사한 ‘운동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다른 대규모 연구 결과도 참조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달리기 속도나 거리에 상관없이 달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약 40%정도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할 위험을 떨어뜨려 준다. 심지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거나 고혈압, 또는 비만

이 있는 그룹군도 마찬가지였다. 달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달리를 시작하면 25%정도 심장마비 위험이 줄었다. 매주 2시간 정도 달리면 3.2년 정도 수명을 늘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시간 달릴 때마다 수명이 7시간 정도 늘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이덕철 교수는 “물론 수명 연장이 무한하지는 않다.”며 수명 증가 수준은 아무리 더 달리더라도 3년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어느 수준까지는 달리기 양과 수명 증가량은 비례 관계였다. 일주일에 4시간까지는 수명이 꾸준히 늘었다. 그 후부터는 더 달려도 수명은 더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이 달리더라도 수명이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달리를 과하게 하면 수명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걷기, 자전거 타

기 등 다른 종류의 운동도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줬지만 ‘달리기’만큼 많이 늘지는 않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왜 ‘달리기’가 여러 운동 중에서도 유독 더 효과적일까? 사람의 몸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에 비유할 수 있다. 심장은 심근으로 이뤄져 있고, 이 심장근육에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뻗어 있다. 달리는 심근과 혈관을 모두 건강하게 만든다. 또 우리 몸에 산소를 불어 넣어 주는 폐포의 면적을 증가시켜 산소 공급능력을 향상시킨다. 달리는 개인의 의지만 있으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비만으로 감량하고 싶으시다면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가볍게 달리를 시작해보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하계 산상집회

일시 : 7월 31(월)~8월 17일(목)

장소 :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 02-533-9191